

1부 미적 근대와 시의 언어

(1) 미적 근대성과 언어

1. 미적 근대, 언어, 해석
2. 감정과 근대적 주체의 탄생
3. 생활과 언어의 일치
4. 생활의 언어에서 문학의 언어로
5. 해석의 출발

(2) 1920년대 초기시의 언어들

1. 현상으로서의 시어
2. 어떻게 표기할까
3. 관념의 표현과 은유적 구조
4. 모방과 자기 촉발의 글쓰기
5. 언어의 형식

(3) 1920년대 초기시의 표기 방식과 그 의미

1. 문제는 형식이다
2. 괄호 표기와 읽기로서의 시
3. 다양한 표기 방식과 그 양상
4. 문학적 현상과 재현의 언어
5. 불안한 표기의 극복

2부 언어의 안쪽과 보편의 세계

(1) 근대의 센티멘탈리스트

1. 경계의 언어들
2. 고백의 유혹
3. 감정은 진실하게

(2) 1920년대 초기시의 표상과 실재

1. 체험의 메타포
 2. 영원(永遠)의 자각과 죽음
 3. 낭만의 열정과 꿈
 4. 예술의 발견과 진리
 5. 내면, 또 다른 세계
- ### 3. 1920년대 초기시의 수사와 감정
1. 두 개의 표정

2. 수사의 형식과 욕망
3. 미적 체험과 감정의 표상들
4. 욕망의 다양한 주름들

3부 언어 밖의 언어

(1) 미적 근대의 전사 - 계몽가사의 담론과 비유체계

1. 근대 계몽기와 새로운 텍스트
2. 담론의 근대성과 비유체계
3. 담론의 형성원리와 그 한계
4. 집단의 목소리

(2) 민족.국가.님

1. 근대문학과 민족
2. 국가, 혹은 영웅의 이름
3. 젠더의 문제와 언어
4. 낭만적 '님'의 탄생
5. 부재하는 '님'

(3) 모국어와 민족어의 가능성

1. 언어와 민족
2. 모국어의 위기와 시어에 대한 자각
3. 언어 순결주의와 고어의 발견
4. 언어를 통한 민족 원형의 재현
5. 민족어의 가치